

# "잠녀문화 스스로 지켜야죠"

안덕 대평리 해신제 부활  
공연 등 문화 계승 노력

등록 : 2011년 08월 16일 (화) 09:53:30  
최종수정 : 2011년 08월 16일 (화) 09:53:30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15일 안덕면 대평리 할망당에 7년여만에 '해신제'가 열리는 등 주민 스스로 잠녀 문화 활성화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강권중 수습기자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가 '잠녀마을'을 선언했다. 지금껏 잠녀 수가 많거나 해녀박물관이 위치하거나 정부나 자치단체가 조성한 테마 마을들에 '잠녀 마을'이란 타이틀을 붙여줬던 것과 달리 마을 안에서 부터 시작된 변화의 바람이 일궈낸 결과에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안덕면 대평리(이장 김창수) 할망당에 7년여만에 '해신제'가 열렸다. 대평리 어촌계(어촌계장 오연수)에는 현재 54명의 잠녀가 등록, 50명 정도가 물질을 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을 지나면서 작업을 하던 고령의 잠녀가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 등 크고 작은 사고로 바다살이가 힘들어졌다. 바다에서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할망당이 있었지만 신방 사망 이후 간신히 형태만 유지해왔다.

마을 밖에서의 불편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할망당을 정비하고 이날 하루 공을 들여 해신제를 올린 이유는 분명했다.

김창수 이장(54)은 "대평리는 날이 좋으면 멀리 이어도가 보인다고 할 만큼 잠녀들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곳"이라며 "이번 해신제는 종교적인 의미라기 보다 잠녀 문화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대평리는 마을회를 중심으로 벌써 3년째 '잠녀 노래' 공연을 펼치고 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1호인 '해녀노래'를 전승하고 올레꾼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를 알리기 위함이다. 매주 금·토요일 대평리 당 캐포구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공연은 최근 해녀전통춤까지 보태지며 '난드르(대평리 옛 지명) 올레 잠녀 해상 공연'이란 이름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대평리는 또 전체 잠녀 중 70% 이상이 바깥 물질을 했을 만큼 생활력이 강했고 이런 가운데 '출가 해녀의 노래'(고 이영근 작사·작곡)가 탄생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잠녀인 오연수 어촌계장(61)은 "점점 작업할 잠녀들도 없어지고 배워서 할 사람도 없지만 이렇게라도 전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역 잠녀들에게도 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